

시가 만드는 형상: 디킨슨 시의 한국어 번역 양상 고찰

정 하 연
(이화여대)

1. 서론: 시가 만드는 형상

시는 언어예술인 문학 중 가장 형식미에 집중하는 장르이기에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 형식 안에 함축되고 숨겨진다. 모든 글쓰기는 형식(form)과 내용(content)의 유기적인 합치 혹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구를 가장 예술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장르가 시인 것이다. 이는 시 번역의 불가능성이 끊임없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이형진 2015: 132), 완전히 다른 소리, 문법체계 그리고 형상을 지닌 언어로 그 외형과 소리를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시는 소리와 형상 즉 형식미가 다른 어떤 문학 장르보다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시 번역은 텍스트 자체의 창의적 전위(creative transposition)를 통해서만 그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Jakobson 1969: 139) 봐야할 것이다.

시가 갖는 형식미와 의미의 관계를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가 만드는 형상(the figure a poem makes). 감탄(delight)에서 시작하여 지혜(wisdom)로 끝나는 이 형상은 사랑과도 같다”(Frost 1939: 139)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형상”이란 사랑과도 같이 추상적인 형상 그리고 모든 형식의 요소들, 즉 “모음과 자음, 구두법, 통사 구조, 어휘, 문장, 율격”(Frost 1939: 139)을 새롭게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본 논문은 영어로 쓰인 시의 형상, 그 표면의 구체적 형상과 이면의 추상적 형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문제를 실증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접근해보고자 한다. 분석 절차는 우선적으로 개별 문구, 통어론적 구조, 구문의 순서, 시의 형식을 면밀하게 살피는 비평 방법론인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 즉 이념적, 역사적, 추상적 주제 중심의 읽기와 구분되는 “시 자체를 읽기(reading the poem itself)”(North 2013:142)에 기반하며, 이 과정을 통해 번역자가 시의 형상을 어떻게 읽어내고, 또 도착어로 어떻게 구현해 내는지 그 양상을 관찰하여 시의 가장 오랜 전통이자 기본인 정형시의 형식 번역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미국의 19세기 시인 에밀리 디킨슨(Emily Dickinson)의 정형시 한 편으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번역자에 의해 한국어로 옮겨진 양상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번역자들이 대면했던 어려운 선택과 결정들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시의 표면과 이면을 함께 번역해내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2. 배경: 영미시 번역에서 형식의 문제

시 번역에 대한 논제는 불가능하다, 어렵다, 창의적 전위여야 한다는 정도로 모호하게 신비화되어 특히 국내에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더구나 정형시의 도착어로의 형식 번역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연구 중 5개의 번역학 관련 학술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1997년부터 2017까지 총 게재 논문 2412편 가운데 시 번역에 대한 연구는 31편, 그 중

영어를 도착어로 다루는 논문은 13편, 출발어로 다루는 논문은 단 6편, 또한 시의 형식을 다루는 논문은 1편, 운율을 다루는 논문 역시 1편에 머물렀다(정혜린 2018: 19). 단편적인 이론 혹은 인용문에 기대어 시 번역의 불가능성이 논의된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들어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번역학 이론적 틀에 입각한 설명과 번역 전략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번역학의 성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해당 연구는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국내 연구 중 시 번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에 이어 정형시의 울격을 비롯한 형식미의 요소들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영미권 시 번역 연구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장에서 진행될 번역시 분석 및 시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 탐색을 위한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1 시 형식 번역의 연구

앞에서 확인했듯이 국내의 시 번역 연구 자체가 수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에서 시 번역에 형식을 반영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들이 가능할까하는 문제는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이거나 지엽적이다.

이 중 시 번역 연구를 추상적 논제 중심이 아닌 구체적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형식미 번역의 가능성을 모색한 사례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시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등가성과 충실성의 관점에서 본 연구를 들 수 있다(김혜경, 윤소영 2016: 25). 해당 논문은 의미와 형식 두 부분에서 어휘, 리듬, 수동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다섯 편의 번역본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방대한 연구로, 앞으로 시 형식의 여러 요소들을 좀 더 깊게 살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텍스트 분석은 어휘 중심으로 “의미의 등가성”과 “형식의 등가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형식의 경우, 운율의 등가성을 본격적으로 살피지는 않고 있다. 즉 원문의 압운과 울격에 대한 분석 없이 번역문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 살리기 정도로 형식미를 파악하고 있다(44-46). 검토 범위가 방대한 만큼 텍스트 검토 자체는 지엽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고, 이에 따라 “의미상의 등가나 형태상의 등가를 충분히 확보하여 그에 적절한 등가 원칙에 따라 충실한 번역을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번역가의 전략

에 따라 시적 효과를 담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 번역의 방향이라 생각한다(51)”는 결론은 추상적으로 일반화된 경향이 있다.

시 번역의 불가능성을 전제로 출발하는 연구 중 독일어 시 번역을 다룬 한 논문의 경우 원문의 각운에 해당하는 단어의 배치를 번역본에서 “어휘의 파라디그마”(박용삼 2008: 248) 즉 원문의 통어론적 구조에 맞춘 결과 “시의 운율의 표현이 변죽을 울릴 정도로 가능”(박용삼 2008: 252)하다는 소박한 결론에 다르다. 해당 연구의 경우 주로 각운(end rhyme) 중심으로, 즉, 압운(rhyme)과 울격(meter)” 중 압운에 집중하고 있어서 매우 부분적인 검토라도 볼 수 있지만, 서양시 형식의 대표적 요소를 한국어로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통어론적 해결책을 통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막연하게나마 시 번역에서 “축어적 번역의 중요성”(Ryou 2003: 479)을 강조한 연구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현 가능한 축어적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고 릴케 시의 영역과 김소월 시의 영역을 사례로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좀 더 밀도 있는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형식미 반영 방법을 모색해보는 연구가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는 점이다.

2.2 시 형식 번역의 가능성

시에 있어서 형식(form)이란 “시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묘사 가능한 외형적 패턴 혹은 형태로, 행의 구분 여부, 길이, 압운 사용 여부, 음보 혹은 음절의 수 등으로 분류 된다”(Perrine 1977: 360). 이 중 운문의 기본적인 장치를 크게 운율로 묶어서 논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운율은 압운과 울격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영어 정형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미라고 간주하는 것은 위의 연구들에서도 살펴봤듯이 각운(end rhyme)이지만, 이는 압운 중 정형시 형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고, 압운에는 그 외에도 두운(alliteration), 모음운(assonance), 자운(consonance) 등이 있으며 모두 단어의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배열하는가에 달려 있기에 정형시에서의 활용 방식은 다

르나 영문시와 국문시에 모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활용되는 장치이다.

그러나 율격의 경우, 영시와 한국시에서 확연히 다른 형식을 취한다. 압운은 소리로 그대로 드러나는 자음과 모음의 어우러짐에 기반한다면, 율격은 음절들이 이어져 만들어내는 내재적인 리듬을 형식화 한 것이어서 음절의 길이와 강약이 확연히 다른 영어와 한국어는 전혀 다른 형태로 형식화되어 있다.

영시의 율격은 음보의 숫자로 구성된 고저율(accentual-syllabic meter) (Pinsky 1998: 124), 혹은 강약의 음보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강약율(accentual-metrical system)(김정화 2003:153)이라고 구분되는 반면, 한국시에서 “가장 중요한 율격 형성의 자질은 곧 음절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시는 음절율(syllabic meter)”(김정화 2003 :183)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율격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음절수를 측정해야 하여 한국 시의 율격은 음수율이라고 규명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율격을 지키는 영문 정형시를 율격 있는 국문 정형시로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나의 정형시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큰 틀은 율격이고, 위의 논문들에서 “리듬”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다뤄진 장치들이 율격이라는 규칙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니 율격의 번역은 정형시 번역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율격의 번역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온 학자이자 번역가로 셰익스피어 전문가 최종철 교수를 들 수 있다. 최 교수는 자신의 연구와 번역에서 셰익스피어 희곡 운문 번역론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셰익스피어 희곡의 운율인 “약강오보격 무운시(iambic pentameter blank verse)”로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따라서 “운문은 우리말로도 음율과 리듬이 살아 있는 운문으로, 더 구체적으로 글자수를 맞추는 자수율 혹은 음수율이 적합하다”고 제안한다(조영미: 65-66).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최 교수가 완벽한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은 영어 정형시의 율격 번역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대한 코퍼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는 반면, 셰익스피어 운문 번역 시도에 대한 강한 비판이 현재로서는 두드러진다. 이 비판은 운문 번역의 의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지난한 일”(조영미 2001: 66)이며, 국문의 율격을 음수율에 맞춰 글자 수를 맞추는 작업, 즉 구현(execution)이 매끄럽지 못하기에 “운문을 자처하면서도 오히려 산문 번역보다 더 산문투가 되어버린

대사들이 많다”(조영미: 67)고 그 의도 자체를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은 하나의 작품의 밀도 있는 분석에 기반을 둔 주장이 아닌 점이 아쉽고, 의도가 문제인지 구현이 문제인지 구별이 힘든 모호한 논거를 토대로 “운문 번역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말의 맛을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운문 번역의 전제부터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조영미 2001: 67)라는 결론은 성급하다고 보인다. 운문의 산문화가 해답이라면 시 번역에서 형식미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시 번역의 불가능성이라는 논제로 결국 돌아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최 교수의 노력은 영시의 강약율을 한국시의 음수율로 적극적으로 번역해내기 위한 거의 유일한 시도인 점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는 한 사람에게 의해 단시간에 완성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여러 번역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다듬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본 연구는 밀도 있고 실증적인 ‘자세히 읽기’를 기반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시 형식 번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렇듯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 않은 반면 해외 연구의 경우 시 형식 번역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본 연구에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해외 번역학의 추세 역시 지난 몇 십 년 간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가 이룩한 거대한 이념적 성과에 대한 일종의 부작용으로 번역의 미학적 측면에 집중한 연구, 특히 시 번역의 이론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와중에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 과정에서 선택을 스스로 소개하고 기술하는 논문들이 시 번역 연구의 대다수를 차지해왔다(Underhill 2016: 30-38).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시 번역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이론적 체계를 제시해주는 두 저서가 있어 본 장에서 소개하고, 이어지는 번역본 비교 분석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로 직접 적용하고자 한다.

미국의 저명한 중세문학 번역가 버튼 라펠(Burton Raffel)의 1988년 저서 『시 번역의 기술(The Art of Translating Poetry)』은 저자의 방대한 경험을 토대로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진 다양한 언어 쌍의 번역을 구체적이고 실증적 검토하는 동시에 정형시 번역의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라펠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비교 율격(comparative

prosody)이다. 이 개념은 “번역된 시가 시로 재탄생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166)라는 그의 주장이 공허한 이념적 선언이 아닌, 번역으로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미학적 가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시되었다. 라펠에 의하면 비교 율격이란 출발어의 율격 체계를 도착어에서 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착어의 율격 체계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찾아 대체 가능성을 일컫는다. 즉 복제가 아닌 “근접하기(approximation)”(83)가 율격 뿐 아니라 번역의 모든 측면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의미이다.

더 구체적으로, 비교 율격의 원칙하에 시 번역에서 수행할 중요한 선택의 순서와 방법을 동족 언어 간의 번역과 동족 언어 간의 번역이 아닐 경우로 세분화하여 책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번역을 살피는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비동족 언어 간 시 번역시 고려할 항목을 살펴보면 1) 음운론적 고려 2) 통사적 고려 3) 어휘 고려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으며, 어휘 자체의 경우 중요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 번역은 단어의 번역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시사적이다.

라펠의 비교 율격 개념을 발전시켜 시 번역 이론을 더욱 체계화한 최근 연구가 프랑스 루앙 대학 교수이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체코어를 오가는 번역가 제임스 W. 언더힐(James W. Underhill)의 저서 『시 번역에 있어 시적 목소리 그리고 운문화(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이다.

언더힐은 시 번역의 이론화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번역학 연구 동향 안에서 살피면서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문화(versification)를 제시하며 “시의 의미 양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운율적 요소들의 역동적 상호작용”(318)이라고 정의 내린다. 즉, 운문화는 표면적 형식만을 일컫는 개념이 아니라 시가 의미와 표현을 통하여 독자에게 주는 궁극적인 감동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번역에 대한 논의에 구체적으로 도입한 개념인 비교 운문화(comparative versification)는 “시 번역의 과정에서 운문화 장치들이 그대로 복제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도착어의 유사한 장치로 대체하거나 변주하여 원시의 효과를 보완함”(280)을 의미한다.

이 저서에서는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에밀리 디킨슨 시의 프랑스어 및 독일어 번역 작품들을 비교 운문화 개념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어지는 장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 기준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텍스트 및 기준

본 논문의 분석 대상 텍스트는 미국의 대표 시인인 에밀리 디킨슨의 정형시 한 편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시가 지닌 형식미 번역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택한 작품이다.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다양한 번역 전략을 살피기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번역가에 의해 번역된 시인 그리고 작품을 고르고자 했고, 또한 정형시 중에서도 현대적이고 실험적이어서 개성적인 형식미를 보여주는 시인이기에 디킨슨이 본 연구에 적절한 코퍼스를 제공해줄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디킨슨의 시는 문학사적 중요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이 번역되어야 하고, 더 널리 읽혀야 하는 고전의 반열에 속한다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3.1 에밀리 디킨슨의 작품세계 그리고 시 320번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에밀리 디킨슨은 1830년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방 작은 마을 앰허스트에서 태어나 1886년 사망할 때까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여 그의 생애는 아직도 많은 부분 베일에 싸여 있으나, 사후 발견된 1,800여 편에 달하는 시 그리고 방대한 분량의 서신을 통해 20세기에 널리 알려지게 된 시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미시 연구에 있어서 현존 최고의 권위자이자 가장 정밀한 텍스트 분석가로 평가 받는(Donadio 2006: 1) 헬렌 벤들러(Helen Vendler)가 디킨슨 시 150편을 모아서 각 시의 형식과 주제를 면밀하게 분석한 저서 『디킨슨(Dickinson)』을 해석의 지표로 삼아 번역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벤들러는 디킨슨의 작품을 “경구적(epigrammatic)이고, 간결하고, 급작스럽고, 놀랍고, 혼란스럽고, 교태스럽고, 야성적이고, 매력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도발적이고, 불경스럽고, 비극적인 동시에 웃음을 유발”한다고 규명한다(Vendler 2010: 3). 이는 디킨슨의 주제와 형식을 아우르는 묘사로, 디킨슨의 작업은 “진술보다는 암시”(Vendler 2010: 4)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벤들러는 정의 내린다.

특히 벤들러는 시의 통어론적(syntactical) 구조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인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질서”(Donadio 2006: 1)라고

여기며, 디킨슨 시의 경우 익숙한 소재들을 “지도를 그리듯 위치시킨 후 중첩적으로 쌓아가”(Vendler 2010: 10) 시인이 작품 안에서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게 하는 통어론적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한다. 즉, 간결한 시 안에서 매우 제한적 시어를 사용하되, 유연하고 역동적인 통어론적 구조를 통해 주제를 변주하고 암시한다.

디킨슨의 시는 형식 또한 간결하여 모두 4행이 하나의 연을 이루는 찬송율(hymn meter)의 율격으로, 한 연이 4-3-4-3, 혹은 3-3-4-3의 음보수로 운영되며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에 각운을 사용하는(Vendler 2010: 5) 엄격한 정형시 형식을 구사한다.

시인의 사후에야 발견된 1,800여 편에 이르는 디킨슨 작품은 제목이 없어 분류 번호로 표기되거나, 편의 상 시의 첫 줄이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50년대에 이르러야 부분적으로 분류되어 출판되기 시작하여 전집 분류작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번역 분석의 대상 텍스트로 살펴볼 시는 작품 320번(해당 번호는 1999년 발간된 *The Poems of Emily Dickson: Reading Edition*, ed. Ralph W. Franklin에 따른다)으로, 디킨슨의 시 중 널리 알려진 작품의 하나이며 한국어 번역본도 다양하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Winter Afternoons -
That oppresses, like the Heft
Of Cathedral Tunes -

Heavenly Hurt, it gives us -
We can find no scar,
But internal difference -
Where the Meanings, are -

None may teach it - Any -
'Tis the Seal Despair -
An imperial affliction

Sent us of the Air -

When it comes, the Landscape listens -
Shadows - hold their breath -
When it goes, 'tis like the Distance
On the look of Death -

형식의 면에서 앞서 설명한 4행으로 이루어진 연 구성 및 2/4 행의 각운 등을 확인하기도 전에 눈에 띄는 것은 디킨슨의 독창적인 장치들인 대시(dash) 부호 및 대문자의 비문법적인 사용일 것이다. 또한 문장 종결 시 마침표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디킨슨은 일반적인 구두법을 따르는 대신 구문과 구문 사이, 어떤 경우 단어와 단어 사이에도 대시를 두드러지게 사용한다. 디킨슨의 대시는 1) 쉽표로는 그 단절의 고통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분리, 단절된 상태를 지면에 그대로 드러내거나 2) 지속성의 단절 표현 3) 서사를 수정하는 불길한 표시 4) 특히 대부분 시의 결말 부분에서 존재의 유예 혹은 시의 결말을 무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Vendler 2010: 21-22).

또한 대문자를 문장 중간의 명사 혹은 동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중세 영어 혹은 독일어 표기법을 따른 것이라는 등(Martin 2014: 21)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명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의도된 효과가 강조조건, 휴지(休止) 혹은 의인화의 표시이건(Martin 2007: 117), 확실한 것은 디킨슨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에 가장 어울리는 방식으로(Martin 2007: 117)” 매우 특수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운율은 앞서 설명했듯이 찬송율을 따르는 4행-4연-2/4행 각운 형식이 되, 음보는 강약격(trochaic)이며 찬송율의 기본 율격인 4-3-4-3 형식으로 시작하여 2,3 연에서는 3-3-4-3으로, 첫 연의 율격 중 첫 행을 3으로 줄여 좀 더 급작스러운 효과를 주다가, 마지막 연에서 빛이 짧게 “오고” 마지막 어둠으로 “가는” 내용에 도달해서는 다시 첫 연의 율격인 4-3-4-3을 따르고 있다(Vendler 2010: 129). 일반적으로 정형시에서 1연이 시 전체의 운율 체계(prosody)를 제시하는 관습을 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변이는 이 시의 내용과 주제와 직결된다. 비스듬한 양광이 비치는 겨울 오후 풍광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교회 선율의 억압, 하늘이 선사하는 고통, 절망,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찰에 이르는 구조는 엄격한 청교도적 신앙과 규율의 지배 하에서 “절망은 2대 죄악 중 하나”(Vendler 2010: 126)였던 당시 사고방식에 과감하게 대항하는 현대적이고 실존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즉, 디킨슨의 형식적, 주제적 파격은 “찬송의 전통을 불리우되, 이러한 전통의 공동체적 성격을 자신만의 급진적인 개별성으로 재창조해내어...19세기의 전통적인 사회 및 종교 배경에 자신만의 뚜렷한 목소리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Hirsch 1999: 284-285).

벤들러는 위 320번 시의 형식적인 변이를 “디킨슨은 영적인 삶을 하나의 별도 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뉴잉글랜드 겨울 오후 저물어가는 한 순간에 단단하게 묶어두고 있다”라고 해석한다(Vendler 2010: 129). 즉, 감각과 영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낸다.

형식과 주제의 이러한 유기적 결합이 바로 프로스트가 표현한 “시가 만드는 형상”일 것이다. 이 시에서 그 형상은 빛이라는 감탄의 대상에서 시작하여 죽음이라는 지체로 끝나며, 이는 시의 표면과 이면에서 같은 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내적, 외적 형상이 번역이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전위될 수 있는지를 다섯 편의 번역본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려 한다.

3.2 분석 기준

이렇듯 엄격한 형식 속에서 파격을 보이며, 드러내기보다 함축과 암시의 내용을 담은 디킨슨의 작품은 시 번역의 난제를 포괄적으로 안고 있기에 디킨슨 번역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물고, 구체적인 분석 혹은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번역에 대해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언급은 번역서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함께 번역의 수준 문제, 상당한 오역, 미숙한 번역을 지적하며 “기존 디킨슨 번역자들은 최소한 그 기본적인 전달의 성실성에도 충실치 않았다”(손혜숙: 362)라는 혹평이었으나, 구체적인 사례나 설명으로 뒷받침된 비평은 아니었다.

해의 연구의 경우 『에밀리 디킨슨 학회지(Emily Dickinson Journal)』를 통

하여 세계 여러 국가에 디킨슨 번역시가 소개된 역사와 양상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일본어로의 번역 과정을 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논문(Freeman and Takeda 2006), 스페인어로의 번역 양상을 화용론적으로 살펴본 연구(Dahlgren 2005) 등이 있어 국내 연구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화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어지는 장에서 수행할 다섯 편의 번역본 검토는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한국어 시 번역 양상을 개괄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실증적 분석으로, 정성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을 토대로 영시의 운율을 한국어로 반영하여 원시의 형식과 주제를 유기적으로 번역시에서 표현, 전달해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시 번역 연구의 체계화에 크게 기여한 주요 연구로 소개한 라펠과 언더힐의 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참고하여 디킨슨의 시에서 두드러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라펠의 경우 번역시 검토 시 논의를 “번역자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기저를 이루고 또 좌우하는 여러 경쟁적 의무들 사이에서 번역자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에 집중하고 있다(Raffel 1988: 165). 시 번역자의 여러 의무 중 언어적 의무에는 시의 형식, 통사구조, 운율체계 등이 포함되며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라펠의 초미의 과제는 미학적 의무, 즉 “번역자는 어떻게 원작자가 자신의 언어로만, 자신의 문화 안에서만 유효하도록 창작해낸 작품의 특정한 힘과 에너지 그리고 내적, 외적 의미들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재현해낼 것인가?”라고 구체화하고 있다(Raffel 1988: 157).

언더힐은 이러한 기준을 좀 더 체계화하여 시 번역의 난제를 1) 언어 체계의 문제, 2) 운율 체계의 문제, 3) 두운, 반복, 표현 등의 이차적 구성요소 편성의 문제, 4) 개별적인 표현 행위로서 하나의 시가 지닌 구체적 구성의 문제로(Underhill 2016: 6) 분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교 문문화 개념을 번역시 분석에 적용하는 절차는 “전위 과정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미학적 동향, 개별적 선택, 암시적 번역 전략을 고려하는 동시에 기술적 전략과 어휘 선택을 관찰하고, 번역자의 직관적이고 미학적인 선택에서 드러나는 원칙과 취향을 인지하는”(244)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언더힐은 해당 저서의 한 장을 디킨슨 시의 프랑스어 번역 분석에 할

애하여 자신의 분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수행할 검토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용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위의 두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 기준들을 토대로 이어지는 장에서 영어 정형시의 기본 형식인 압운과 울격 반영 여부를 비롯하여 디킨슨의 대시 및 대문자의 독특한 사용 뿐 아니라 해당 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언어적, 미학적 요소들이 번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혹은 변형되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4. 분석 결과: 시 형식 번역의 양상

4.1 번역본 다섯 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다섯 편의 번역본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번역으로, 번역자 역시 시인에서 전공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표절에 가까운, 앞선 번역본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번역본들은 배제한 결과 다섯 편을 추렸다.

TT1

「겨울 오후」

겨울 오후
한 줄기 비탈진 빛
성당의 소리 무게만큼
숨막히다

그건 성스런 상처를 안겨 주어
그 흔적 찾을 바 없다
오직 의미들이 담긴
내적 무관심이 있을 뿐

그것에 무얼 가르칠 자 있으랴
그건 끝맺음이요, 절망
하늘에서 우리한테 보낸
거역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이 오면 풍경은 귀를 기울이고
그림자들은 숨을 죽인다
그것이 떠날 때는 마치 죽음의
얼굴에 놓인 거리 같은 것

TT2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한줄기 빛이 비스듬히 비친다.
겨울 오후 -
대사원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의
무게와도 같이 짓누르며 -

그것은 굉장히 상처를 주는데도 -
상처 자국 하나 없으랴.
허나 교감이 이는 내면에선
천둥같은 변화가 - .

아무도 그것을 가르칠 순 없다 - 아무도
그것은 봉인된 절망 -
대기가 우리에게 건네준
장엄한 고뇌 -

그것이 올 때면, 그림자들은 숨을 멈추고 -
풍경들은 귀 기울인다 -
허나 그것이 사라질 때면 - 마치 죽음의
얼굴 위에 누운 거리처럼 아득하여라.

TT3

「겨울 오후에」

겨울 오후에
한 줄기 빗긴 양광이 있어
성당의 노래처럼
무겁게 압박한다.

천상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나
상처하나 찾을 수 없고
다만 마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려 주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것은 봉인된 절망
대기에서 보내 온
엄청난 아픔이다.

그것이 올 때면 풍경도 귀를 기울이고
그림자도 숨을 죽인다.
그것이 갈 때면 죽음에 서린
낯선 거리감을 준다.

TT4

「한 자락 빗긴 햇살이 있어」

한 자락 빗긴 햇살이 있어,
겨울 오후 -
대성당 선율의 무게처럼
내리누른다 -

그것은 우리에게 준다, 천국의 고통을 -
우린 상처 자국 하나 발견할 수 없다
허나 내면적(內面的) 차이,
거기에 의미가 있다 -

아무도 그것을 가르칠 수 없으리라 -
어느 누구도 -
그것은 봉인된 절망 -
대기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온
장엄한 고통이다 -

그것이 오면, 풍경은 귀 기울이고 -
그림자들은 - 숨을 죽인다 -
그것이 가면, 죽음의 표정 위에 드리운
거리(距離) 같다.

TT5

「겨울 오후면 어떤」

겨울 오후면 어떤
비스듬히 비긴 햇살 있어 -
성당 선율의 무게처럼
목직이 마음에 내려앉는다 -

그것은 천상의 타격 입혀 -
어떤 상처도 내지 않지만
내면의 차이 만들어 -
거기서 의미 나타난다 -

누구도 그것을 알려줄 순 없다.
누구도 - 그것은 봉인된 절망-
하늘에서 보내온
장엄한 고통 -

그것이 올 때 풍경은 귀 기울이고 -
그림자들은 - 숨죽인다 -
그것이 갈 때면
죽음의 얼굴에 서린 머나먼 간격
같아라 -

4.2 번역본 분석

다섯 편의 번역 시를 앞 장에서 제시한 대로 해당 작품의 정형시 형식의 기본을 이루는 압운과 율격 반영 여부를 비롯하여 디킨슨의 대시 및 대문자의 독특한 사용 그리고 구체적 통어론적 구조 및 전개 순서 등을 분석 기준으로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TT1은 1976년 출판된 디킨슨 시선집에 실린 번역본으로, 역자는 시인이자 영문학자이다.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시 도입부, 즉 첫 행과 둘째 행이 원시의 위치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사구가 주술부의 앞

에 위치하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통사구조에 따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번역자가 갖는 언어적 의무와 미학적 의무 사이에서의 갈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번역에 대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이는 원시의 분절적인 구성과 리듬을 유연하고 매끄럽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결어미 뒤에도 마침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시 생략을 보완하고 있음이 보인다.

각 행의 통사적, 운율적 구성을 살펴보면 원시의 엄격한 정형시 율격을 도착어로의 체계적 근접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시의 강약률을 한국어 자유시의 음수율로 미약하게나마 대체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각 행 통사구조의 운문화를 통해 가능해졌음이 확인된다. 특히 3연의 3,4행을 명사절로 구현하면서 4-4-2, 3-3-2의 음수율을 만들어내고 있어 대시 누락으로 약해진 분절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2행과 4행의 각운 “Despair-Air”를 “절망-고난”의 모음운(assonance)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운문화 전략은 마지막 행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현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종결어미 없이, 또한 마침표 없이, 명사절로만 마무리를 지어 원시에서 대시로 끝맺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주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T2 역시 1976년 출간된 디킨슨 시선집에 실린 번역본이나, 대형 출판사에서 당시 문단에서 크게 각광받기 시작한 시인의 번역으로 출간된 경우로, 해당서는 2016년까지 3판 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힌 디킨슨 번역시집이다.

우선 눈에 띄는 사항은 원시의 1,2행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1행에 종결어미와 마침표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대시의 경우 대부분 원시의 위치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각 행의 위치나 통사구조가 바뀐 상황에서 대시의 물리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행의 전략을 마지막 행에서도 반복적으로 채택하여 종결어미와 마침표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두드러지는 전략은 원시에 명시되지 않은 이미지와 수사를 드러내기 위해 단어, 어미, 조사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1연에 “비친다,” “흘러나오는,” 2연에 “주는데도,” “허나,” “천둥같은,” 4연에 “허나,” “누운,” “아득하여라”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언어적, 미학적 의무보다는 해설하고 설명하려는 의무에 따른 선택으로 보이며, 그 결과 원시의 정형시 형식이 많은 부분

산문화되는 효과를 보인다.

그 반면, 원시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복이 2연(“상처”)과 3연(“아무도”)에 나타나며, “비스듬히 비친다,” “귀 기울인다” 등에서 원시의 각운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운문화 전략도 볼 수 있다.

TT3은 1996년 출판된 디킨슨 시선집에 실린 번역본으로 역자는 영문학자이다. 여기에서도 1,2행의 순서가 아마 TT1과 같은 이유로 바뀌었고, 대시 역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TT1과 매우 다른 전략은 모든 연의 최종행을 종결어미와 마침표를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있는 점이다. 대시 생략으로 인한 분절적 약화를 보완하지 않고 시 전체를 통사적으로 더욱 산문화하는 선택을 한 것인데, 이는 TT2에서 살펴본 명시화 전략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 반면 적극적인 음수율 조절이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1연 3,4행의 3-4, 3-4 율격, 3연 3,4행의 4-3, 3-4 율격이 관찰되며, 4연의 경우 원시의 대구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운문화 전략을 구현하고 있다.

TT4는 2003년 대학출판부에서 펴낸 디킨슨 시와 해설을 엮은 교양서에 실렸으며 역자는 이공계 학자로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영시를 번역한 경우이다. 여기서 도입부는 원시의 1,2행 전개 순서를 따르면서 1행을 연결어미와 쉼표로 원시의 통사구조를 반영하여 분절적이고 불안정한 디킨슨의 호흡을 구현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시는 원문 총 13회 중 11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각 연의 최종행은 종결어미로 마치지만 마침표는 4연 마지막 행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연은 종결어미 뒤에 대시를 사용하여 절충하고 있다.

이러한 운문화와 산문화 사이의 절충적 선택은 통어론적 구조 전반에도 나타난다. 2연 1행에서 원시 도치구문을 한국어로 반영한 것과 1연에서 “내리누른다”의 압운 효과 등의 운문화 시도가 보이는 동시에, “-,” “-은,” “-을,” “-도” 등의 조사를 전혀 생략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음수율 율격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명시화, 산문화 경향 역시 뚜렷하다.

TT5는 2016년 대형 출판사에서 펴낸 총 15명의 미국 대표시인을 소개하는 시선집에 실린 7편의 디킨슨 번역시 중 한 편으로 역자는 영문학자이다. 이 번역본의 도입부는 1,2행의 순서는 바뀌었지만 1행에 원시 1행에서 가져온 “어떤”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동시에 음수율 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행에서 “비스듬히 비친다”의 두운으로 원시의 두운 및 /s/, /t/, /l/ 자음의 어우러짐 효과를

반영해주고 있다.

대시의 경우 총 13회를 모두 원시 위치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TT4와 마찬가지로 각 행의 통사구조는 대부분 원시와 달라진 상태에서 대시의 표면적 위치를 원시와 동일하게 구현한 것이라 그 효과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대시 사용과 함께 마침표 사용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1, 2, 4연의 마지막행은 모두 종결어미로 마치고 있어서 운문화와 산문화 전략 사이에서 입장 결정이 되지 않은 듯한 양상은 앞의 번역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번역본에서 드러나는 비교적 확연한 운문화 전략은 앞서 1연 도입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부분적 음수율 구현을 비롯하여 각 연의 1,3행 혹은 2,4행에서 “어떤-처럼,” “입혀-만들어, 않지만-나타난다,” “절망-고통,” “숨죽인다-같아라” 등 각운을 불완전하게나마 구현하는 시도를 통해 운율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4.3 번역 양상: 유사점과 차이

이렇게 살펴본 각 번역본의 선택과 전략들에서 드러난 번역 양상을 정리하자면, 우선 라펠과 언더힐이 시 번역의 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비교 율격 혹은 비교 운문화 전략이 다섯 편에서 모두 미약하지만 부분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라펠이 비동족 언어간의 비교 율격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 음운론적 요소들을 도착어로 구현한 시도들이 압운 살리기를 통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율격 역시 영어의 고저율을 한국어의 음수율로 전위하는 시도들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40년에 걸쳐 이루어진 여러 번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다섯 번역자 모두 비교 운문화 전략에 대해 고민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동시 그 시도가 각 번역본에서 2-3행을 넘지 않는 미미한 정도인 점은 최근까지도 비교 운문화가 아직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거리가 먼 두 언어인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이러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으나, 이를 감안 하더라도 여러 번역본에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번역자들이 원시

의 운문적 요소들을 도착어인 한국어의 운문 요소로 대체하고 전환하는 전략에 대하여 선명하게 의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압운과 율격 외 디킨슨의 특징적인 형식적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번역자들의 전략이 더 차이를 보이고, 각자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디킨슨 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 파격 중 하나인 대시의 경우 번역본 다섯 편 중 두 편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세 편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반영 횟수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 TT5만이 원문에 총 사용된 13회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킨슨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상당한 횟수로 대시를 사용하여 자신 만의 개성적인 구두법을 구축하였으며 이 부호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시 자체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Ryou 2003: 106). 그러나 한편, 앞의 분석에서 기술하였듯이 대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운문화를 적극 수행하려는 전략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않는 것이 종결어미와 마침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찰되었다. 이는 언더힐의 디킨슨 시 프랑스어 번역본 분석에서 드러난 현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시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생략한 번역본들은 설명 추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행 순서 반영에는 매우 충실한 번역 전략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학술적 시 번역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250). 즉, 프랑스어 번역에서는 대시의 생략이 운문화의 약화로 이어진 반면, 국문 번역에서는 대시를 살린 번역이 통사적 운문화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대시를 생략한 TT1이 통사의 운문화 전략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혼돈은 앞서 비교 운문화 전략에 있어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시의 출발점과 도달점, 즉 프로스트가 “시가 만드는 형상”이라고 표현한 내적(주제적)·외적(통어론적) 구성을 살펴보면, 세 개의 번역본은 원시의 첫 행을 둘째 행으로 위치 변경시키고 있어 프로스트가 “감탄”이라고 표현한 시의 출발점이 “한 자락 어떤 빗긴 햇살”에서 “겨울 오후”로 바뀐 것으로, 단순히 행의 순서, 즉 원문의 통어론적 구조를 그대로 번역에 반영해야 하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형상의 큰 변형이 보이고 있다. 세 번역자의 이러한 선택은 종속구 혹은 종속절이 주술부보다 앞에 오는 한국어의 일반적인 구문 형태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앞서 소개한 벤들리의 “지도를 그리듯 위치시킨 후 중첩적으로 쌓아가”는 디킨슨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통어론적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은유의 배치”(127)를 바꾸는 것은 번역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택일 것이다. 디킨슨을 미국 현대시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인으로 꼽고 있는 평론가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이 시의 해설에서 첫 행에 등장하는 단어 “slant”는 디킨슨의 의식 안에 있는 특정한 “편향”의 제유(提喻)임을 강조하며(Bloom 1994: 303), 이 제유가 “절망”으로 이어지고 “죽음”에 도달하는 구조, 즉 형상을 조명하고 있다. 한국어 번역본 다섯 편 중 원시의 마지막 단어, 즉 프로스트가 “지혜”라고 표현한 지점의 “Death”를 시의 도달점으로 반영한 시는 한 편도 없는 것 역시 같은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보인다. 문법적으로 “죽음”을 마지막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이는 라펠이 말한 “언어적 의무”에 속하기에 더 중요한 미학적 의무를 우선하는 선택을 고려해볼 수 없을지 중요한 숙제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다섯 편의 번역본에서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운문의 패러프레이즈, 즉 “내용을 그 산문적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고쳐 쓰는”(Perrine 1977: 362) 현상으로, 운문화의 반대 작용으로 본다면 산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블룸은 “디킨슨 문장의 패러프레이즈는 위험한 일”(Bloom 1994: 300)이라고 표현하며 평론에서조차도 디킨슨의 시를 풀어쓰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언더힐은 디킨슨에게 운문과 산문의 관계는 “단순히 문체를 일컫거나 미학적 문제가 아닌 형이상학적 태도이며... 디킨슨의 미학에서 산문은 초월에 반하는 개념”(285)이라고 까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번역자는 누구나 “원문이 난해할수록 불안해지기 마련이어서 과도한 해설의 유혹을 느끼게 되어”(Middleton 1989: 125) 산문으로 풀어쓰는 전략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해당 시에서는 3연의 2행 “Tis the Seal Despair”인데 명사 2개를 나열하여 은유적으로 쓰인 구문이 TT2,3,4,5 네 편에서 모두 “봉인된 절망”으로 명시화, 합리화, 산문화되었다. “인장”과 “절망”을 동격으로 나열한 구조는 블룸이 디킨슨의 시가 서양문학의 정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꼽은 “노력하여 성취한 낯설음 그리고 전통과 맺고 있는 오묘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난해하고 이상한 구문이기에 번역자들 당혹시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산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

스러운 일이지만, 네 편 모두 동일한 표현과 구조로 번역된 것은 우연의 일치이기는 힘들며 뒤의 세 편은 TT2의 영향 하에 번역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드러난 가장 아쉬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섯 편의 번역본이 해석과 통어론적 구조에서 보이고 있는 유사성이다. 즉 지역적인 선택과 부분적인 전략에는 차이가 보이지만 시 전체의 유기적인 내적, 외적 의미를 읽어내고 반영하는 해석적 관점은 지극히 유사하다는 점이며, 번역자들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실험적인 비교 운문화 시도를 하는 현상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더힐이 분석한 5편의 프랑스어 번역본들의 전략이 보이는 극명한 차이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물론 영어와 프랑스어 간의 언어적, 문화적 거리는 한국어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가깝지만, 한국어 번역에서 아직 비교 운문화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인 방식으로 시도된 예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울 뿐 아니라, 다섯 개의 번역본 중 가장 확연한 운문화 시도는 가장 초기 번역본이라는 점이 흥미로운 발견이다.

“번역되지 못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기 보다는 그 시대를 사는 이들이 듣기를 거부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Underhill 2016: 287)라고 언더힐은 책의 말미에서 쓰고 있다. 즉, 한 시대의 번역자들은 자신들이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번역한다는 의미이며,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답할”(287) 뿐이다. 그렇다면 다섯 명의 다양한 배경과 경력의 번역자들이 40년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행한 번역에서 일관성 있게 산문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운문을 듣지 못한 것인가 묻게 된다. 더 나아가 이것이 혹시 한국어의 산문화 현상이 반영된 양상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산문화가 지금 이 시대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엄연한 현실이라면 시 번역에서 운문화 노력은 번역가들에게 더욱 막중한, 그리고 시도해봐야 할 임무일 것이다. 앞서 관찰한 비교 운문화의 시도들을 보면 다섯 번역자 모두 산발적이지만 압운과 음수율을 아름답게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영시의 한국어 번역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더 본격적인 시도들이 나온다면 비교 운문화의 기반을 닦아 번역시가 운문다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방법론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5. 결론: 운문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혁명적 운문 언어의 창시자”(Vendler 2010: 7) 에밀리 디킨슨의 정형시를 국문으로 옮긴 번역본 다섯 편으로, 해당 번역 텍스트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 번역의 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운문의 형식미를 창의적으로 전위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이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는 아래와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 영미시의 국문 번역에서 시 형식의 반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해외의 시 번역 이론화 동향을 살핀 후 영미시와 국문시의 율격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형시 번역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에밀리 디킨슨 작품 320번 시의 형식적 특징과 주제적 의미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셋째, 다섯 편의 번역본을 비교 운문화의 개념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넷째, 번역본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교 운문화가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한 동시에 다섯 편 전체에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산문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시가 만드는 형상을 다른 언어로 옮겨내는 작업은 항상 형식과 내용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번역의 불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형식도 내용도 새롭지 않은 번역으로 귀결될 것이다. 도착어로의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하지만 출발어의 형상에 가까운 전위는 비교 운문화를 통하여 가능하고, 도착어로 새로운 시의 형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 그것이 시 번역의 출발점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화 (2003) 「한국 시 율격의 유형」, 『어문학』 82: 153-186.
 김혜경, 윤소영 (2016) 「등가성과 충실성의 관점에서 본 시 번역 사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25-54.
 박용삼 (2008) 「번역은 반역인가 - 시 번역의 번역학적 접근」, 『독일문학』 108: 237-254.

- 손혜숙 (2003) 「연구동향: 에밀리 디킨슨 연구」, 『안과밖』 8: 352-363.
- 원영희 (2006) 「번역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시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127-149.
- 이형진 (2015) 「시 번역 불가능성의 역설」, 『번역학연구』 16(5): 135-155.
- 정혜린 (2018) 「한국 시 번역 연구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학술대회, 11-20.
- 조영미 (2001) 「셰익스피어 번역의 어제와 오늘」, 『안과밖』 10: 21-48.
- Bloom, Harold (1994) 'Emily Dickinson: Blanks, Transports, the Dark', *The Western Canon*,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291-309.
- Dahlgren, Marta (2005) 'Preciser What We Are: Emily Dickinson's Poems in Translation', *Journal of Pragmatics* 37: 1081-1107.
- Donadio, Rachel (2006) 'The Closest Reader', *The New York Times Sunday Book Review*.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06/12/10/books/review/Donadio.t.html?ref=review&pagewanted=all>.
- Freeman, Margaret H. and Masako Takeda (2006) 'Art, Science and Ste. Emilie's Sunsets: A Haj-Inspired Cognitive Approach to Translating an Emily Dickinson into Japanese', *Style* 40(1&2): 109-127.
- Frost, Robert (1939) 'The Figure a Poem Makes', in Joyce Carol Oates (ed.) *Best American Essays of the Century*, Boston: Houghton Mifflin, 176-178.
- Hirsch, Edward (1999) *How to Read a Poem*, New York: Harcourt.
- Jakobson, Roman (1969)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38-143.
- Martin, Wendy (2007)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Emily Dickinson*, Cambridge, UK: Cambridge UP.
- Martin, Wendy (2014) *All Things Dickinson: An Encyclopedia of Emily Dickinson's World* [2 Volumes] Santa Barbara, California: Greenwood.
- Middleton, Christopher (1989) 'On Translating Gunter Eich's Poem "Ryoanji"', in John Biguenet and Rainer Schulte (eds) *The Craft of Transl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25-142.
- North, Joseph (2013) 'What's "New Critical" about "Close Reading"?', *New Literary History* 44(1): 141-157.
- Peden, Margaret Sayers (1989) 'Building a Translation', in John Biguenet and Rainer Schulte (eds) *The Craft of Translation*,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27.
- Perrine, Laurence (1977) *Sound and Sens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Pinsky, Robert (1998) *The Sounds of Poetr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Raffel, Burton (1988) *The Art of Translating Poetry*, University Park and London: The Pennsylvania State UP.
- Ryou H. Kyongjoo (2003) 'The Importance of Word-for-Word Translation Or How to Minimize What Is Lost in Postic Translating', *Comparative Literature* 30: 461-480.
- Ryou H. Kyongjoo (2003) 'Emily Dickinson's Rooms of Her Own: A Study on Her Use of the Dash',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 88-107.
- Underhill, James W. (2016) *Voice and Versification in Translating Poems*,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 Vendler, Helen (2010) *Dickinson*,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P.
- Wang, Baihua (2014) 'Translations of Emily Dickinson into Chinese: 1949-1983', *The Emily Dickinson Journal* 23(2): 92-104.
- Wechsler, Robert (1998) *Performing Without a Stage: The Art of Literary Translation*, North Haven: Catbird Press.
- Xu, Cuihua (2013) 'A Scrutiny into Chinese Translations of Emily Dickinson's Poetry (1984-2011)', *The Emily Dickinson Journal* 22(2): 107-127.
- <분석 텍스트>
TT1
에밀리 디킨슨 (1976) 「겨울 오후」, 『에밀리 디킨슨 詩選』 김재현 역 서울: 서문당.

TT2

에밀리 디킨슨 (2016/1976 초판)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고독은 짙 수 없는 것』 강은교 역 서울: 민음사.

TT3

에밀리 디킨슨 (1996) 「겨울 오후에」,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 김명옥 역 서울: 혜원출판사.

TT4

에밀리 디킨슨 (2003) 「한 자락 빗긴 햇살이 있어」, 『수수께끼 - 에밀리 디킨슨의 시와 감상』 류주환 편역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TT5

에밀리 디킨슨 외 (2014) 「겨울 오후면 어떤」, 『가지 않은 길 - 미국 대표시선』 손혜숙 편역 서울: 창비.

[Abstract]

The Figure a Poem Makes: A Study of Formal Transposition as Observed in Korean Translations of Emily Dickinson's Poetry

Jung, Ha-y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despite skepticism from both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aiming for a relatively, if not perfectly, faithful translation of poetic form, through an analysis of five different Korean translations of Emily Dickinson's Poem 320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Dickinson's poetry was selected as the subject for this study for its traditional prosody, which at the same time engages in experimentation in both form and content, resulting in a formal construct that is singularly distinctive in style.

The analysis is based on close readings of the original poem and the choices that each translation is built on in terms of "comparative versification," as theorized by James W. Underhill.

The study finds that while the existing translations do not actively take on the challenge of versification, several successful isolated attempts at translating Dickinson's trochaic meter into syllabic meter in Korean, which presents a possibility for a creative transposition of lyric form in verse translation. However, the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verse and prose in Korean writing pose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translating poetry and developing strategies for comparative versification.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poetic form, lyricism, prosody, aesthetics in translation. comparative versification

▶ 주제어: 문학번역, 영미시 번역, 정형시, 운율의 번역, 비교운문화

정하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junghayun@ewh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시번역, 운율의 번역, 번역의 통어론적 구현, 번역의 미학적 지평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